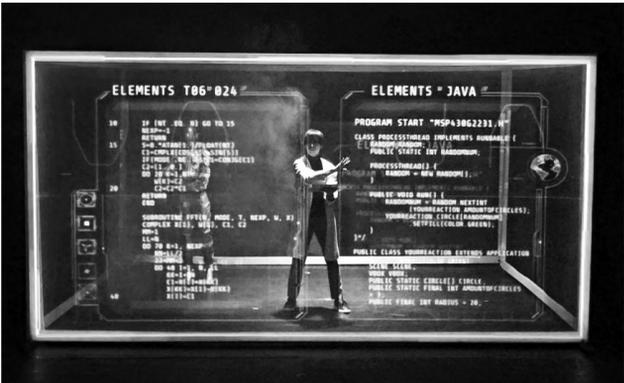


[리뷰-연극] 극단 상상창고 '어느 날 아침 깨어나보니 AI로 변신해 있었다'

AI극 변신한 카프카 소설 '변신' 융복합 공연 신선함에 '몰입감'



제20회 국제평화연극제 일환으로 지난 24일 공연일번지에서 펼쳐진 연극 '어느 날 아침 깨어나보니 AI로 변신해 있었다' 공연 장면. (광주연극협회 제공)

카프카는 소설 '변신'을 통해 삶의 부조리와 소통 단절을 그렸다. 실존은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 만일 카프카가 21세기 한국에서 소설을 집필한다면 어떤 은유가 성립할까.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로 현대적인 모티프가 되기 충분하다. AI는 인류 문명의 이기기로 발명됐으나 인간의 잘못된 도덕관으로 인해 '딥페이크'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근미래적 불안과 디스토피아 세계관이 한 편 연극으로 초점화됐다. 지난 24일 저녁 광주 공연일번지에서 펼쳐진 극단 상상창고 작 '어느 날 아침 깨어나보니 AI로 변신해 있었다'는 카프카의 '변신'을 극화, 인류에게 윤리적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었다. (사)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회장 고난영)가 주최하는 제20회 국제평화연극제 일환으로 무대화됐다.

공연이 시작하자 객석 앞에 드리운 대형 반투명 스크린이 이목을 끌었다. 배우들의 움직임에 따라 라이브 영상이 송출되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은 관객들에게 이머시브(몰입형) 감각을 선사했다.

무한히 배열된 3D 매트릭스 이미지는 손짓에 따라 이동하며 이번 공연이 무용·영상이 어우러진 융복합 창작극임을 환기했다. 로봇 분장을 한 배우는 화려한 1인무로 인트로를 장식했다.

줄거리 자체는 한 줄 로그라인으로 집약될 만큼 간명했다. "어느 날 아침, 공 씨 가족은 큰아들 기준(강주성 분)이 AI가 된 것을 보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삶에 적응하지만 점차 불만을 느끼면서 갈등을 빚는다"는 것. 단출한 서사지만 공연미학을 더하는 디테일은 클리셰를 피하게 했다.

국제평화연극제 일환 무대화 객석 앞 반투명 스크린 설치 배우들 움직임 라이브 영상 송출 왜곡된 소품들 실재·경계 혼동 'AI에 대한 경각심' 화두 던져

먼저 작품은 스크린, 창문, 문 등 미장센 활용을 통해 공연예술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했다. 소극장 특성상 장막 전환 시 세트 재배열이 어려우나, 이 같은 난점은 '문', '창문' 위치를 바꿔 관객들에게 새로운 공간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아크로바틱한 퍼포먼스와 풍자적 과장이 돋보이는 오브제는 공연의 특색을 더했다.

배우들은 책상 위를 구르거나 침대에서 점프하는 등 고난도 동작을 보여줬다. 작은 실수도 있었으나 크게 거슬리지 않았다. 다만 흔들리는 '철제문'은 맥거핀(줄거리와 관련 없으나 중요한 것으로 위장하는 트릭)이 아니라면 보수가 필요해보였다. 현준(장세현)이 문에 매달리는 장면에서 연기보다 흔들림에 눈길이 더 갔기 때문.

극장 내 소품들은 현실과 동상의 구분을 모호하게 했다. 내 개 다리 축이 잘려나가 불균형하게 기운 의자, 바퀴를 달고 굴러다니는 탁상은 조형적 왜곡으로 실재의 경계를 혼동하게 했다.

SF, 현실참여극을 표방하는 작품이지만 주인공 술극장 통, 공연일번지 등에서 지난 28일까지 펼쳐졌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다. 주연 배우 강주성과 장세현의 감정 연기도 몰입감을 더했다.

초연 당시부터 제기됐던 에필로그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해 보였다. 카프카 원작을 존중하다 발생한 아쉬움일 수 있으나, 개작을 거치면 대중성과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다.

가령 원작에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몸에 박혀 썩어들어가는 그레고르를 뒤로, 가족들이 전차를 타고 교외로 향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를 오마주한 연극은 가족들이 짐을 꾸리고 무대 뒤편으로 떠나는 모습으로 결말짓는다. 죽었던 기준이 일어나 문 너머 빛으로 나아가는 장면은 허무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기제였다.

그럼에도 죽은 이후 극적 긴장감이 다소 와해된 점은 아쉽다. 초반 이후 줄곧 뒤편에 배치됐던 프로젝션을 전방으로 끌어와 중후반 이후 다시 몰입감을 선사하는 방법 등이 떠올랐다.

가족들이 출연히 떠나버리는 서사 구조도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다소 급작스러운 피날레는 공씨 일가가 개심했는지 판단 여부를 관객들에게 미룬다. 줄곧 가족에게 시달렸던 주인공이기에 대미에서 고통이 승화되는 전개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울러 'AI에 대한 경각심'이란 주제의식은 잘 전해졌으나 원작 너머의 무언가가 더 있었으면 싶다.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변신' 레퍼토리도 대동소이한 결말을 차용한다는 연유에서다. 물론 기술과 무용적 요소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점은 이번 작품만의 변별성이다.

한편 국제평화연극제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예술극장 통, 공연일번지 등에서 지난 28일까지 펼쳐졌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해 제1회 빛고을 전통연희축제 행사 장면. (자타공인 제공)

신명나는 풍물놀이 즐기러 가세~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오늘 수완호수공원 야외무대

전통연희는 예술의 네 가지 원형 가(歌), 무(舞), 악(樂), 희(戲)를 모두 포함한 종합예술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자산이지만 요즘 그 명맥을 계승하는 예인들의 면면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대표 고현영·자타공인)이 전국 연희자들의 교류전 '제2회 빛고을 전통연희축제'를 2일 오후 7시 수완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친다. 공연 부제인 '와룡봉추(臥龍鳳雛)'는 연희자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 가능성을 담지한다.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풍물놀이 '문굿'으로 막을 연다. 무속 굿의 거리에 천왕문을 열어 신을 맞이하는 작품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고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전통예술원 놀제의 '우왕'은 소싸움 놀이를 소재로 모티브 삼은 창작 레퍼토리다. '소 중에 왕을 뽑는다'라는 내용으로 소싸움 대회장에서 펼쳐

지는 흑소와 황소의 대결을 다뤘다. 예인협회 in 천지와 자타공인이 함께하는 '버나 놀이'도 공연장을 채운다. 헛바퀴나 대접 등을 돌리는 묘기로 전국에 전파된 남사당놀이의 한 종목이다. 놀이꾼들의 재담과 익살스러운 연기는 관객을 몰입하게 하는 요소다.

시나위 형식을 차용해 만든 '양금시나위'는 자타공인이 들려준다(작곡 윤은화). 즉흥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며 남도계면 선율, 개량양금의 반음계와 테크닉을 이용해 타악적 요소를 극대화했다.

이밖에도 우도유희의 '우도설장구', 여성장작 국악단 홀리의 '버꾸춤'을 비롯해 전 출연진이 어우러지는 사물판굿 '대동판굿'도 마당을 수놓는다.

고현영 대표는 "시인들이 전통의 매력을 경험하고 젊은 연희자들이 예술적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야외 무료공연. /최류빈 기자 rubi@

아동문학가 손동연 '꽃꽃동시상'

수상 시집 '날마다 생일'

해남 출신 아동문학가 손동연이 제3회 꽃꽃동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시집은 '날마다 생일'(푸른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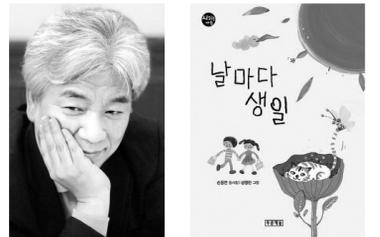
꽃꽃동시상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윤효)는 25일 제11회 꽃꽃문학상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했다.

꽃꽃문학상은 지난 2014년 개관한 광주꽃꽃문학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시가 지원한다.

올해 꽃꽃문학상 꽃꽃상은 박용재 시인의 시집 '신의 정원에서', 대순상에 함명춘 시인의 시집 '종', 고마상에 한영숙 시인의 시집 '카멜이 바늘귀를 통과한 까닭'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유자호 위원장을 비롯해 양예경 시인, 홍용희 평론가가 맡았다.

손동연의 '날마다 생일'은 18년 만에 새 동시집으로, 새로운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나는 봄에 대한 설렘을 담았다.

꽃꽃동시상 수상자로 선정된 손동연 아동문학가는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일보 신춘문에 동시



손동연 작가

(1975), 서울신문 신춘문에 시(1980), 동아일보 신춘문에 시조(1983)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대한민국문학상, 방정환문학상, 열린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집 '진달래꽃 속에는 경의선이 놓여 있다', 동시집 '참 좋은 짝' 등을 펴냈다.

한편 손 작가는 꽃꽃동시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시어를 아끼는 것도 환경운동이다"라는 마음으로 다 말하지 않아 더 말 걸어오는 시를 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